



“행정통합 즉시 중단하라”

완주군의회와 완주-전주 통합 반대 군민대책위원회 등 군민 500여명은 16일 세종시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완주-전주 통합 반대 입장을 강력하게 공식 표명했다. (관련기사 2면)

<사진=완주군의회>

전북, 농식품부 ‘농촌용수개발’ 665억 확보

‘농촌용수신규지구’ 최종 선정
익산·정읍·완주, 물환경 개선
저수지·관로 확충 가뭄 대응
농업생산 기반 혁신 기대

전북자치도는 16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5년도 농촌용수개발 신규지구 사업’에 익산, 정읍, 완주 3개 지구가 최종 선정돼 총 665억 원(국비 640억)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이를 통해 지역 맞춤형 물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농업생산 기반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는 목표다.

농촌용수개발 사업은 농업용수 부족 지역을 대상으로 용수공급체계를 개선하거나 신규 저수지를 설치해 안정적인 물공급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가뭄, 노후시설 문제 등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에 선정된 지구는 ▲익산 용안지구(논범용화 용수공급, 120억) ▲정읍 애당지구(농촌용수 체계재편, 385억), ▲완주 원송지구(다목적 농촌용수, 160억)로, 전국 13개 선정지구 중 3곳이 전북에 포함돼 지역의 용수 공급체계 혁신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익산 용안면 용안 논범용화 용수공급 사업은 금강 하류의 수원을 활용해 논 중심의 용수공급체계를 발착물과 원에



작물 등 다양한 작물에 대응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한다. 정수시설을 설치하고 맑은 물을 공급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정읍 소성면 애당 농촌용수 체계재편 사업은 흥덕저수지의 여유 수량을 하류 지역으로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양수장과 관로를 새롭게 설치한다. 이를 통해 물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가능하게 한다.



정부 사업 선정된 익산 용안지구(사진 좌상), 정읍 애당지구(사진 우상), 완주 원송지구(사진 좌하) 위치도. <사진=전북도>

완주 화산면 원송 다목적 농촌용수 사업은 반복되는 가뭄과 수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목적 저수지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신규 저수지를 중심으로 수자원 분배의 균형을 맞추고 지역의 물 순환 체계를 안정화해 영농 환경을 개선한다. 향후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핵심 기반 시설로도 활용될 수 있다.

각 지구 사업은 공통적으로 노후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자동화된 운영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농업현장에서 물관리의 효율을 높인다. 이를 통해 생산성은 물론 재해 대응력까지 확보할 수 있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이번 사업성과를 계기로 2026

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신규 사업지구 발굴과 타당성 검토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용수공급계획을 선제적으로 수립하고, 정부 정책에 발맞춘 전략적 대응을 통해 농촌 물환경의 전면적인 혁신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영태 기자

전북자치도, 기재부 설득 총력전 내년 국비 확보에 사활 걸어

김종훈 경제부지사 기재부 방문
주요 현안 예산 반영 요청
새만금 등 핵심사업 집중 설득

전북자치도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반영을 위해 기획재정부 설득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전북도는 16일 김종훈 경제부지사가 정부 세종청사를 방문해 기재부 예산실 간부들과 연이어 면담을 진행하며, 전북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2026년 국가 예산 반영 필요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방문은 기재부의 2차 예산심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맞춰 전북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 반영을 선제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전략적 대응 차원에서 추진됐다.

이날 김 부지사는 예산총괄심의관을 비롯해 고용예산과장, 국토교통예산과장, 산업중소벤처예산과장, 연구개발예산과장, 정보통신예산과장, 농림해양예산과장 등을 차례로 만나, 주요 국책사업인 새만금 개발사업, 농생명 산업 그리고 미래산업 등 20건 사업에 대해 국가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특히 새만금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새만금 내부개발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항 인입철도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새만금 수목원 조성 ▲김제 용지 정착농원 잔여 축사 매입사업 ▲새만금 고용특구 활성화 지원 등의 필

요성을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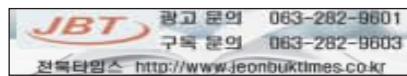
농생명 산업의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동물용의약품 임상시험센터 ▲팻푸드 소재 산업화 플랫폼 구축 ▲사료작물 종자 생산기지 구축 등의 사업도 건의하였다.

또한 ▲전북 인공지능 신뢰성 혁신 허브센터 구축 ▲특정산업 생태계 다각화를 위한 건설기계 상용화 지원사업 ▲전기상용차용멀티-배터리 시스템 다중부하 평가기반 구축 ▲형상 정밀모니터링 바이오 프린팅 기술 고도화 ▲수용가 전기설비 원격점검 및 디지털 안전관리 기술개발 ▲방사선 기반 소재장비 기술 혁신화 사업 ▲첨단드론 스포츠 활성화 지원센터 등 AI, 모빌리티, 바이오 등 미래 산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이 외에도 도는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연수원, 디지털 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을 ▲전북 디자인진흥원 건립 등의 사업들도 국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전북의 미래를 이끌 핵심 사업들이 정부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정치권 및 중앙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해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전북도, 내년 地選 앞두고 3단계 공직감찰 돌입

복무·정치중립 위반 강력 대응
‘무관용 원칙’ SNS 활동도 감찰

전북자치도가 새 정부 출범과 제8회 내년 6월 3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한 본격적인 감찰에 착수했다.

도는 7월부터 내년 5월까지 총 3단계에 걸친 ‘단계별 공직감찰’을 시행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기강 해이, 소극행정 등 부적절한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확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감찰은 시기별·분야별·상향별 맞춤형 점검 방식으로 이뤄지며, 특히 선거철을 앞두고 정치적 중립성 훼손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공직감찰은 총 7개 반 32명으로 구성된 전담 감찰반이 분청과 직속기관, 14

개 시군, 출연기관 등 전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1단계는 복무 취약시기를 겨냥한 집중 감찰로, 하계휴가철과 추석 명절을 포함한 7월 14일부터 10월 1일, 연말연시와 설 명절을 포함한 12월 23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추진된다. 근무지 무단이탈, 하위출장, 민원방치 등 복무규정 위반 여부와 함께 성비위, 음주소란, 갑질, 겹직 등 공직자의 품위손상 행위까지 폭넓게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명절 및 연말연시를 틈탄 사조직적 모임, 정치인과의 사적 접촉, 편향적 언행 등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고강도 감찰을 병행해 선제 차단에 나선다.

2단계는 오는 10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로, 수의계약 남용, 유연근무 약

용, 생활 속 불공정과 소극행정 등을 주제로 한 기획감찰이 실시된다.

3단계는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둔 2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정치권 줄서기, 선거 개입, 특정 후보자 홍보 등 중립성 위반행위 전반에 대해 전방위 감찰이 이뤄진다. SNS 정치활동, 정당 행사 참석, 후보자 관련 게시물 작성 등 선거와 관련된 모든 정치적 활동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김진철 도 감사위원장은 “새 정부 출범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기강 확립이 더욱 절실한 시기”라며 “단계별 감찰을 통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청렴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전국최초 아동친화도시
상위인증 평신도시 완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완주

아동권리영화제

작품공모

2025.6.19.(목)~9.8.(월)

참가자격

① 대한민국 아동·청소년(개인/팀) ② 가족팀(아동, 성인 구성)

공모주제

① 다름을 존중하는 세상 (예: 장애인, 이주민 등 소외계층 아동의 권리 쟁점)
② 나의 목소리, 우리가 만드는 세상 (예: 아동·청소년의 목소리를 반영한 사회변화 이야기)
③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예: 디지털 환경, 마음건강, 놀이환경 등)

작품길이

10분 이내(장르: 스톱, 애니메이션, 뮤직비디오, 극영화)

영화제 일정-2025.10.25.(토) 오전 10시

완주군청 문예회관 (필수참석)

분야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아동·청소년팀	1팀(부상 200만원)	1팀(부상 100만원)	4팀(부상 50만원)	10팀(부상 10만원)
가족팀(아동, 성인)	1팀(부상 100만원)	1팀(부상 100만원)	4팀(부상 50만원)	10팀(부상 10만원)

www.wanju.go.kr/wanjucfc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 아동청소년 홈페이지 참조)

문의: 010-6622-2186
사)한국영화인총연합회 전북도지회

신청은 QR코드로 접수

완주군 WANJUGUN

사)한국영화인총연합회 전북도지회

전북자치도 특색 담은 관광 콘텐츠 한자리에

국제관광박람회 참가 14개 시군 관광자원 소개 실질적 관광객 유치 기대

전북특별자치도가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 7홀에서 열리는 '제10회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KITS)'에 참가해 도내 대표 관광자원과 관광산업 성과를 소개한다. 올해로 10회를 맞는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는 국내 대표 관광 산업 박람회로, 약 300개 기관과 기업이 참여해

500여 개 부스를 운영하며, 국내외 관광 콘텐츠를 소개하는 대규모 행사다. 특히 여가생활 확대와 관광 수요 다변화에 대응하는 In-Out-Intra Bound 통합형 박람회로, 지자체와 여행사, 항공사, 관광벤처 등 다양한 관광 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자리로 평가된다. 전북도는 이번 박람회에서 도내 14개 시군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관광 콘텐츠를 총망라한 홍보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최근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꼭짜 속

아수다'의 촬영지 △고창 청보리밭, '스물다섯, 스물하나'의 배경이 된 △한벽굴 등 전북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영화 촬영지를 소개하며 관람객의 흥미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홍보관에는 관광 전문 상담 인력을 배치해 관람객에게 맞춤형 여행 코스를 제안하고, 단체 관광 유치 상담도 함께 진행한다. 전북 관광 전담여행사도 현장에 참여해 도내 관광상품을 실시간으로 소개하고 판매로 연계하는 등 실질적인 관광객 유치 성과를 꾀한다.

이밖에 박람회 1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개막식을 비롯해 B2B 바이어 상담회, 전문가 특강, 해외 도시 설명회 등 주요 행사에도 참석해 관광산업 네트워크를 넓힐 계획이다. 이정식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박람회 참여를 계기로 전북의 관광자원을 국내외에 효과적으로 알리고,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며 "관광이 전북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게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전북도의회 의장-원대 갈등 속 예결특위 위원 선임 '무산'

임시회 안전 상정 본회의 표결 끝 무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위원 선임이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갈등으로 본회의에서 표결 끝에 무산되는 일이 벌어졌다. 문승우 전북도의회 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장에서 열린 도의회 제42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예결특위 위원 선

임의 건을 안전으로 상정했다. 예결위원으로 추천된 의원은 김명식·강태창·권요안·김정수·김이재·임종명·김희수·윤정훈·이수진·이명연 의원 등 10명이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의회 원내대표인 장연국 의원(비례대표)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문승우 의장을 직격했다. 장 의원은 "관행상 원내대표가 요청하면 도의장이 그대로 추천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왔다"며 "그런데 오늘 올라 있는 위원 명단을 보면 애초 제가 요

청한 명단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의장이 자의적으로 명단을 변경하는 것은 그간의 도의회 관행을 깨는 것이고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며 "도의장이 동료 의원들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과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아울러 "이런 물상식의 극치를 무기력하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지금 올라와 있는 예결특위 위원 선임의 건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니 도의장 독단으로

변경한 안이 아니라 원안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언이후 표결에 들어가기 전 문 의장은 "이번 예결특위 위원 선임은 원활한 의사 운영과 그간의 위원 선임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짧게 반박했다. 그러나 표결 결과 재석 의원 32명 중 반대 17명, 찬성 10명, 기권 5명으로 예결특위 위원 선임의 건은 부결됐다. 도의회는 부결된 예결특위 위원 선임 안전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받을 예정이다. 또 원내대표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면 본회의 폐회 때 다시 예결특위 위원 선임 안전을 올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태 기자

완주군 “주민 동의 없는 졸속 추진 명백한 위험”

세종시 행안부 방문 완전 통합 강력 반대 표명

완주군의회(의장 유의식)와 주민들은 16일 세종시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완주·전주 행정통합 추진에 대해 “주민 동의 없는 졸속 추진은 명백한 위험”이라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이날 방문에는 유의식 의장을 포함한 의원 전원 11명과 완주·전주 통합 반대 완주군민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군민 500여 명이 함께 참여했다. 유 의장은 주민 참여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통합 절차의 부당성을 알리고, 자치권 보장과 민주적 공론화의 필요성을 정부에 직접 호소하며 통합 중단을 요구하는 공식 건의문을 행정안전부 김민재 차관에게 직접 전달했다. 이날 행정안전부 청사 앞에서는 ‘완주·전주 통합 반대 완주군민 대책위원회’ 주도로 대규모 집회가 열려 “행정통합 즉시 중단하라”라는 구호가 울려 퍼졌다. ‘지방자치 말살하는 행정통합 중지’, ‘군민동의 없는 행정통합 즉시 중단’ 등의 피켓을 든 군민들과 함께 완주군의회 의원들도 현장에 동참해 군민과의



군의회와 주민, 행정안전부 방문해 '완주·전주 통합 중단' 공식 건의

연대 의지를 보였다. 군의회가 제출한 건의문에는 △완주·전주 통합 추진의 즉각 중단 요청 △주민자치 및 지방분권 보장 촉구 △3만2,785명의 군민 반대 서명부 △각종 여론조사 등이 포함됐다. 군의회는 입장문에서 “전북도와 전주시가 추진하는 통합 논의는 군민 공감대 형성이나 정당한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지방자치의 원칙과 주민 주권에 반하는 것”이라며 “완주군민은 서명운동을 통해 통합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며 “완주는 수소특화지구,

테크노밸리, 국가산단 등 자립형 성장 기반을 구축해온 미래형 도시로, 무분별한 통합은 오히려 지역 발전의 발목을 잡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의식 의장은 “완주군 입장에서 통합은 군민의 삶과 지역의 운명을 뒤흔든 중차대한 문제로, 군민이 배제된 통합은 원천 무효”며 “완주는 옳이 군민의 힘으로 오늘의 변역을 이뤄온 자립형 자치도시로, 역사와 자존심과 미래를 농락하려는 그 어떤 시도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완주=김명근 기자

전북소방, 소방법률지원 예산 절감 등 성과

연간 55건 자문 3천8백만원 예산절감

전북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소방법률지원 제도가 시행 1주년을 맞아 전문성 강화와 예산 절감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16일 밝혔다. 소방법률지원 제도는 소방직 변호사의 장기 공백에 따른 법률 지원 대책 방안으로 마련돼, 지난해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소방본부는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2024년도 680만 원, 2025년도 1,26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고문변호사 3명을 위촉해 운영해 왔다.

제도 시행 1년 동안 총 55건의 법률자문이 이뤄졌으며, 자문 내용은 소방관서 계약서 검토, 관계 법령 해석, 소송 대응, 예산 집행 관련 쟁점 등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이 같은 법률지원은 현장 행정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특히 소방직 전담 변호사 채용 시 연간 약 5,000만 원의 인건비가 필요한 반면 현재의 고문변호사 체계는 연간 약 1,200만 원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어 약 3,800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고문변호사 수수료는 '전북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준용해 월 4건까지 30만 원, 이후 건당 5만 원을 가산해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하는 방식

이다. 소방본부는 제도 시행 1주년을 맞아 지난 15일 고문변호사 간담회를 열고 운영 성과를 공유했으며, 향후 고도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실무 적용상의 어려움과 개선 사항이 폭넓게 논의됐으며, 자문 수요 증가에 따른 위촉 인원 확대, 자문 절차 간소화, 사례 축적 체계 구축 등의 제안이 제시됐다. 이오숙 도소방본부장은 “전문 변호사 채용 없이도 고문변호사를 통한 법률자문 체계를 통해 법적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 행정과 법률 전문성 간 균형을 갖춘 소방 서비스를 제공해 도민 신뢰를 더욱 높여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도, 집중호우 예보 재난 대응체계 강화

19일까지 최대 200mm

전북자치도는 16일부터 19일까지 도내 전역에 집중호우가 예상됨에 따라, 도민들에게 각별한 주의와 철저한 사전 대비를 당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강우는 16~17일 중부지방과 전북을 중심으로 최대 150~200mm 이상의 폭우가 예상되며, 18~19일에는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인명피해 우려 지역, 산사태 취약지역, 하천 인근 공사장, 빗물받이, 침수우려 지하차도 등 피해 우려지역 18만 2,307개소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다.

도는 2023년, 2024년 2년 연속 피해가 발생한 익산시 망성면 일대에 대해서는 화산지구 배수펌프 10대(1.1천톤/분) 증설, 배수지선 준설, 침수 방지 제수문 및 제방 월류방지 방호벽 설치 등을 완료했다. 또한 전북자치도는 침수 취약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사전 예찰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노홍석 행정부지사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무엇보다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피해를 줄이는 가장 중요한 열쇠인 만큼 집중호우 시간대 하천변 산책을 자제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이원택 의원 “논공 침수, 재발 방지책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김제·부안·군산을)은 지난 6월 중순 집중호우로 인해 전북 지역 논공 재배지에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하자 해당 피해가 농업재해 지원 기준에 따라 복구비 지원 대상에 포함돼 이달 말까지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6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김제, 부안 등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총 1천393헥타르에 달하는 논공 재배지가 침수되며 파종 후 미발아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14일 현재 최종 확인됐다. 이에 따라 농업축산식품

/서울=김영목 기자

부안군 공고 제2025 - 1226호

부안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안)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

부안군 행안면 신기리 108-4번지 일원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 공공청사)을 입안함에 있어,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 7. 17.

부 안 군 수

1.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변경)(안)

가.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사실형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가정	변경	변경 후		
신설	7	행안면 복합청사	공공청사	부안군 행안면 신기리 108-4번지 일원	-	총11,048	11,048	금회	

○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번호	사실형	결정내용	결정사유
7	행안면 복합청사	• 공공청사 신설 - 면적 : 11,048㎡	• 행정기능을 위한 행안면 청사과 기초가람센터주민편의시설을 복합화함으로써 행안면 복합청사 거점을 마련하고 향후 민원인의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함

2.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변경)(안) 관계서류 :

실용생략(공람장소 비치)

3. 공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25. 7. 18. ~ 7. 31.(공고 다음날로부터 14일간 이상)

4. 공람장소 및 의견 제출처 : 부안군 세만금도시과(☎063-580-4701)

5. 의견제출 방법 : 부안군청 세만금도시과에 방문 또는 우편등으로 서면 제출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부안군청 세만금도시과 도시계획팀(☎063-580-470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 고용률 하락...전년比 취업자 1만명 줄어

2025년 2/4분기 전북 고용동향
여성 취업자 1만 2천명 감소
숙박·음식업 큰 타격

호남지방통계청 전주사무소(명노섭 소장)은 전북지역 2100가구 중 만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매월 15일이 속한 1주간 '경제활동상태' 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2025년 6월 전북특별자치도 고용률은 64.3%로 전년동월대비 0.6%p 하락했으며, 취업자는 99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1만 1천명 감소로 집계됐다.

OECD기준 15~64세 고용률에서는 69.3%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 6월 실업률에서는 전년동월 대비 0.2%p 하락한 2.2%로 확인됐고, 실업자는 2만 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천명 감소세를 보였다.

2025년 6월 전북특별자치도 15세 이상 인구는 154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3천명(-0.2%) 감소했고, 경제활동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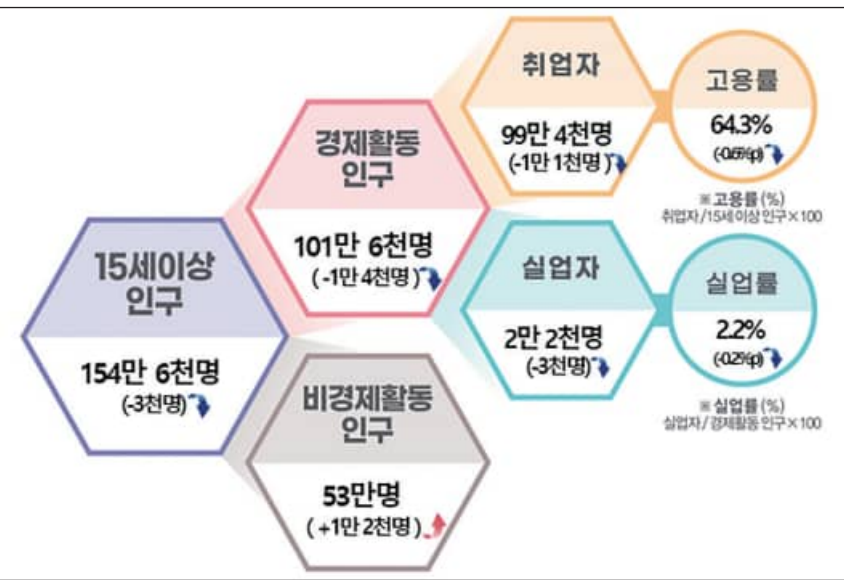
구는 101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4천명(-1.4%) 감소, 경제활동참가율은 65.7%로 전년동월대비 0.8%p 하락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53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2천명(2.2%) 증가하고 가사는 15만 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천명(3.3%) 증가, 육아는 2만 1천명으로 4천명(-16.5%), 통학은 12만 1천명으로 2천명(-1.5%) 각각 감소로 확인됐다.

2025년 6월 15세이상 취업자에서도 99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1천명(-1.1%) 감소, 성별 남자 53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천명(0.2%) 증가, 여자는 45만 8천명으로 1만 2천명(-2.6%) 감소로 나타났다.

고용률은 64.3%로 전년동월대비 0.6%p 하락하고 성별 남자는 70.0%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 여자는 58.7%로 1.2%p 하락했다.

산업별로 취업자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전기·운수·통신·금융업(1만 3천명, 18.2%), 광공업(6천명, 4.7%),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4천명, 1.1%)



호남지방통계청 전주사무소는 전북지역 '경제활동상태' 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경제활동인구구조 인포그래픽과 증감(괄호안) <사진=호남지방통계청>

에서 증가했지만, 도소매·숙박·음식점 업(-1만 3천명, -8.0%), 농림어업(-1만 2천명, -7.1%), 건설업(-1만명, -14.1%)에서 감소했다.

직업별 취업자 전년동월대비 증감에서는 사무종사자(1만 3천명, 9.2%), 관

리자·전문가(1만 2천명, 7.2%)에서 증가, 서비스·판매종사자(-1만 8천명, -9.2%), 농림어업숙련종사자(-9천명, -5.6%),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9천명, -2.5%)에서 감소로 집계됐다.

/김은지 기자

농촌진흥청 온열질환 예방 “폭염 속 농업인 지킨다”

폭염 취약농가 현장 기술 지원
열스트레스저감장비기술 실증

농촌진흥청은 농업인 온열질환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해 수립한 '2025년 여름철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대책'을 토대로 현장 밀착형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2025년 여름철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대책은 '2025년 여름철 자연재난종합 대책'(행정안전부, 5월15일~9월30일)에 맞춰 농촌 현장의 특성과 농업인의 건강 취약성을 고려해 마련됐다.

현재 전국 응급실에 신고된 온열질환자 1566명 중 농업 분야, 온열질환자는 전체 271명(약 17%)으로 집계됐다. 농업 분야 온열질환자의 약 79%는 6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 발생했고, 주요 발생 시간대는 오전 8시부터 급격히 증가해 12~14시(20%)에 가장 많았다. 특히, 전년 동일 기간 대비 전체 온열질환자는 약 2.9배, 농업 분야는 약 2.2배 증가했다.

농업인은 주로 노지·비닐온실 등 고온에 취약한 환경에서 농작업을 하는 특성상 폭염에 취약한 계층으로 분류된다. 고령 농업인은 연령에 따른 체온 조

절 능력 저하와 함께 폭염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이 있어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더욱 크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온열질환 예방 수칙 보급, 농작업자 열 스트레스 저감을 위한 보호장비 기술 실증, 시군별 온열질환 발생 현황 점검(모니터링) 강화,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사전 예방을 위해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가이드'와 '농업인 온열질환 자율점검 체크리스트'를 한국어 등 9개 언어로 제작, 배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활용

할 수 있게 했다.

또 기상청과 협업해 농촌진흥청 '농업인 안전365(farmer.rda.go.kr)' 누리집에서도 '폭염 영향 예보' 정보와 '체감온도 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스마트 폰을 활용할 수 있는 농업인이라면 지역별 폭염 위험도와 예방 정보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 현장에서 즉각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권철희 국장은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현장 밀착형 아이디어 발굴과 신규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했다.

/김은지 기자

LX, 청렴·윤리경영 교육...경영 정상화 원년 다짐

직원 400명 윤리교육 참여
경영정상화 ‘한마음’ 선언

LX한국국토정보공사(LX·사장 어명소)가 청렴하고 투명한 윤리경영을 통한 경영 위기 극복과 경영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는 임직원의 윤리의식 강화와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이 전사적 혁신과 지속 가능한 성장의 중요한 출발점임을 강조하는 메시지다.

LX는 16일 전북 전주시 본사에서 어명소 사장, 이태용 상임감사를 비롯한 직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윤리경영 의무 대면 교육'을 실시했다.

어명소 사장은 윤리적 리더십과 책임

감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더욱 투명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고 위기에 강한 LX로 거듭날 것을 강조했다.

어명소 사장은 '한마음 한뜻으로 이겨내자'는 경영정상화 로드맵을 설명하며 "선배들이 물려준 LX를 우리가 바로 잡아 후배들에게 건강하게 물려줘야 한다"며 "올해가 반드시 경영정상화 원년이 되어야 하며 모두가 허리띠 졸라매고 청렴한 자세로 최선을 다할 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LX는 높아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윤리경영을 위해 직원 개개인의 윤리의식 함양을 강조하고 각종 사례교육을 통해 조직 내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의 필요성에 대한 실천의지를 다졌다.

/김은지 기자



LX는 16일 전북 전주시 본사에서 어명소 사장, 이태용 상임감사를 비롯한 직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윤리경영 의무 대면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LX공사>

전북지방우정청 ‘전북 소상공인 우수상품 품평회’ 개최

27개업체 50여개 상품 전시
판매 가능성 심사맞춤 조건

전북지방우정청(청장 최동원)-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소담스퀘어 전주) 공동으로 '전북 소상공인 우수상품 품평회'를 16일 개최했다.

품평회 자리에는 전북지역 소상공인과 유기관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도내 50여개 우수상품을 전시하고 외부소평률 MD가 판매가격, 구성, 포장상태, 판매가능성에 대한 현장심사 및 맞춤형설명을 진행하며 참가업체들로부터 많은 호평과 관심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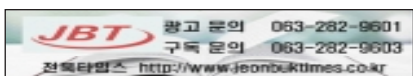
또 품평회 이후 수상자 및 참여 업체 전체 상품에 대해서는 우체국소평률 프로그램인 기획전 운영 및 할인 쿠폰(최대

30%), 택배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됐다.

이날 참석한 라라스팜 대표는 "우리 제품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앞으로 전자상거래 판매 확대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전북지방우정청 관계자는 "이번 품평회를 통해 전북지역 상품 판로 확대 기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내 소상공인 우수상품을 발굴, 홍보, 판매하는데 앞장서 소독중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전북지방우정청과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소담스퀘어 전주)은 공동으로 '전북 소상공인 우수상품 품평회'를 16일 개최했다. <사진=전북지방우정청>



전북농협은 '익산 고구마 모짜렐라 버거', '익산 고구마 모짜렐라 머핀'을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맥도날드>

전북농협-맥도날드, 익산 고구마 활용 버거 출시

고구마 모짜렐라 버거·머핀
전국 400여개 매장 판매

전북농협(총괄본부장 이정환)은 '익산 고구마 모짜렐라 버거', '익산 고구마 모짜렐라 머핀'을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출시된 '익산 고구마 모짜렐라 버거', '익산 고구마 모짜렐라 머핀'은 한국맥도날드 전국 400여 개 매장

에서 판매된다.

특히 '모짜렐라 버거', '모짜렐라 머핀' 제품은 전북 익산 고품질 고구마를 활용한다.

출시된 익산 고구마 모짜렐라 버거는 한국맥도날드에서 국내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지역 상생 프로젝트의 일환인 '한국의 맛(taste of

korea)' 캠페인의 다섯 번째 메뉴다.

전국 각지 고구마 산지와와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정된 익산 고구마는 비옥한 황토밭에서 재배되어 당도가 높고 식감이 부드러운 것이 특징이다.

전북농협은 "프로젝트를 통해 익산 관내 농가 고구마 약 200여 톤이 소비됐다"고 밝혔다.

전북농협 이정환 총괄본부장은 "세계적 외식기업 맥도날드의 '한국의 맛' 프로젝트에 익산 고구마가 선정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익산 고구마의 지속적인 홍보와 판매 촉진을 통해 고품질 익산 고구마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KT·네이버 LLM 활용, 스타트업 AX 개발 속도낸다

중기부, LLM 활용 AI 챌린지
AI 스타트업 협업 지원 본격화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전세희, 이하 전북중기청)은 대기업 LLM 인프라 혁신 AI 스타트업에 개방하고 협업을 통해 도메인에 최적화된 AI 솔루션을 개발해 상용화하는 AI 스타트업 LLM 챌린지 사업을 17일 공고한다.

이번 공고는 산업과 기업에 AI 스타트업 주도의 AX 공급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하고, 동시에 AI 스타트업의 신규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제조, 금융,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LLM에 기반한 AI 기술이 적용되며, 기존 산업의 경쟁 구도를 혁신적으로 바꾸는 핵심 수단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중기부는 지난 3월부터 LLM 기반 AI 기술의 현장 적용을 원하는 LLM 인프라를 보유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AI 스타트업 등 현장의 지속적인 협업 지원 요청을 받아들여, 이번 2차 추경에 동사업을 신설했다.

이번 챌린지에는 자체 LLM을 보유한 KT, 네이버 클라우드, 오라클 등 글로벌 대기업 3개사가 참여해 총 19개 AX 과제를 공모하며, 과제에 선정된 AI 스타트업의 기술성 등을 평가해, 총 20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AI 스타트업별 협업 자금을 최대 1억원 지원한다.

이번 공고는 7월 17일부터 8월 6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공고 세부 내용은 K-Startup 포털(k-startup.go.kr)과 중기부 누리집(ms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은지 기자



지난해 한국전기안전공사 본사앞 썸머페스타 현장. <사진=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로 물놀이 하러 가자!”

이달 29~31일 ‘썸머페스타’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 마당이 축제의 장으로 변신해 지역민 휴식처로 탈바꿈 한다.

한국전기공사는 'KESCO 썸머페스타' 개최해 지역주민 물놀이 축제를 오는 29~31일 본사 앞마당에서 펼친다.

썸머페스타는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주관하며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 완주군이 함께 후원한다.

올해 5회째를 맞은 '썸머페스타'는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여름 축제의 장이다.

'썸머페스타' 시설로는 △워터슬라이드 △플장 △페달보트 △분수터널 등이 설치된다.

특히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전기안전 퀴즈 △가죽 림프 △수박 빨리먹기 △낚시 게임 △에어바운스 등도 함께 운영된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파라솔 쉼터·남녀 탈의실·편의시설 등에 안전요원을 배치해 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개장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며 영유아 및 어린이를 동반한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남화영 사장은 "유 휴공간을 활용해 무더위를 이길 수 있는 시설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 위한 문화 축제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 직업계고 3곳 교육부 재구조화 사업 선정

남원용성고·정읍제일고 줄포자동차공업고 선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5년 교육부 직업계고 재구조화 사업'에 도내 3개 직업계고등학교 6개 학과가 최종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선정된 학교는 남원용성고등학교·정읍제일고등학교·줄포자동차공업고등학교로, 3개 학교 모두 올해 전북교육청 '전북글로벌특성화고'에 신규 선정된 곳들이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신산업·신기술 분야 3개 학과, 학교자체발전전략 3개 학과 등 총 6개 학과의 8개 반이 선정됐다.

남원용성고는 스마트농업 분야 강화를 위해 기존 전기제어과, 자동화기계



줄포자동차공업고등학교 자동차 정비

과, 식물자원과를 '스마트팜과'와 '카페 플라워과'로 변경한다.

정읍제일고는 반도체 분야 특화 차원에서 산업기계과와 기계과를 '반도체장비과'와 '반도체제조과'로 개편한다.

줄포자동차공고는 자동차 정비·도장 전문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해 미래자동차과를 '오토테크정비과'와 '오토컬러도장과'로 각각 재구조화한다.

교육부는 이들 학교에 학급당 3억

7,500만 원씩, 총 30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한다. 학교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지원을 통해 교육과정 컨설팅, 실습실 환경개선, 교사 역량 강화 연수 등 학과 재구조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문형심 창의인재교육과장은 "3개 학교가 전북글로벌특성화고에 이어 교육부 직업계고 재구조화 사업에 선정됨으로써 학과 재구조화가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도내 직업계고가 산업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의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사업은 2018년부터 추진됐으며, 전북에서는 올해까지 총 25개교, 33개 학과, 47개반이 선정돼 126억여 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다.

/최성민 기자

전북교총, 서이초 교사 2주기 온라인 추모관 개설

추모 글 등 메시지 작성 공간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 이하 전북교총)는 오는 18일 서이초 교사 순직 2주기를 앞두고 고인을 추모하고 교권 회복의 다짐을 이어가기 위한 온라인 추모관(<https://x.gd/DZAZm>)을 개설했다.

이번 온라인 추모관은 전북교총이 주도해 충청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준권), 교사크리에이티브회 전북지회(지회장 강경옥)와 함께 공동 개설한 것으로 전·현직 교원, 예비교사, 학부모,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추모관에 접속하면 고인을 기리는 메시지, 교권 회복을 위한 다짐,

교육공동체의 응원 문구 등을 남길 수 있으며, 실명 또는 익명 모두 가능하다. 수집된 메시지는 이달 31일까지 공개될 예정이다.

전북교총은 "서이초 교사의 죽음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교권 붕괴의 경고음이었다"며 "교사는 여전히 고립된 교실에서 살아남기 위해 싸우고 있다. 더는 혼자 견디게 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2년 전의 비극이 단순한 과거가 되지 않도록, 교육공동체가 함께 기억하고 묵소리를 내야 한다"며 "전북교총은 교사 생존권 수호와 교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교육청, 고3·중학생 1500명에 장학금 5억 원 지급

전년 대비 38% 증가 고3·중학생 대상 선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재)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사랑의장학회(이하 사랑의장학회)를 통해 올해 초·중·고·특수학교 학생 1,500여 명에게 총 5억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약 38% 늘어난 수

치로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학업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해 학력신장 및 책임교육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다. 장학생 선발은 △학업우수 △보통 △재능우수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된다.

학업우수 장학생은 고등학교 3학년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하며, 선발 기준은 모의고사 성적과 학교장의 추천으로 이뤄진다.

보통 장학생은 경제적·사회적·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중·고·특수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재능우수 장학생은 전국 및 광역단위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특히 학업우수 장학금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과 발전 가능성을 독려하기 위해 1, 2차로 선발해 8월과 12월 장학금을 지급한다.

장학생은 각급 학교의 신청을 받아 교육지원청 및 도교육청의 심의를 거쳐

오는 8월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학업에 열의를 가지고 성실히 노력해 온 학생들을 지원하는 것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라며 "학업 우수 학생들이 경제적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사랑의 장학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응원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 한식조리학과는 '어린이 요리교실'과 '팜투 테이블' 강의를 통해 지역 어린이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전주대학교>

전북교육청, 학교운동부·현장학습 특정감사 나서

청렴한 교육 환경 조성 총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청렴하고 신뢰받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2025년 학교운동부 및 테마식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오는 22일부터 8월 5일까지 11일간 진행되는 이번 감사는 도내 공립 초·중·고등학교 20개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부패 취약 분야인 학교운동부와 테마식 현장체험학습 분야에 대한 집중 점검을 통해 교육 현장에 청렴 문화가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취지이다.이번 특정감사는 학교운동부 운영 및 현장체험학습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 마련에 중점을 뒀다.

주요 점검사항은 학교운동부 운영 예산 편성 및 집행·운동부지도자 관리, 테마식 현장체험학습 계약·제안서 평가, 보안·개인정보보호 등의 적정성 여부 등이다.

단순한 적발이나 처벌 위주가 아닌, 시스템 개선과 보안을 통해 교육 현장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교육 비리 근절을 위한 교육가족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자 오는 8월 5일까지 불법찬조금, 금품·향응수수 집중 신고 기간도 운영한다.

학생 및 학부모 누구나 도교육청 누리집 내 개설된 부패·공익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이홍열 감사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를 통해 깨끗하고 신뢰받는 전북교육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우석대오석홍 교수,GABA 김치 연구로 세계 전문가 선정



GPS(ScholarGPS)가 발표한 '2024 최고 전문가(Top Scholar)'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스칼라GPS는 전 세계 약 3000만 명의 학자를 대상으로 연구 실적과 논문 인용 수, 학술적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분야별 최고의 전문가를 선정하는 글로벌 학술 플랫폼이다.

오석홍 교수는 아미노부티르산 분야에서 세계 상위 0.5%에 해당하는 연구자로 선정됐으며, 국내에서는 해당 분야 1위에 해당하는 성과다.

그동안 오석홍 교수는 발아현미와

발효식품 등을 활용해 뇌신경 전달물질로 알려진 GABA(γ -Aminobutyric acid)의 생성량을 극대화하는 연구를 활발히 수행해 왔다. 관련 논문을 국내외 유수 학술지에 다수 게재했으며, 이들 연구는 산학협력을 통해 기능성 식품 개발 등 실용화 성과로도 이어지고 있다.

GABA는 혈압을 낮추는 효능은 물론 뇌세포 신진대사 촉진과 정서 안정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기능성 물질로 알려져 있다.

오석홍 교수는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스칼라GPS 순위에 선정돼 매우 영광스럽다"며 "앞으로도 GABA를 비롯한 기능성 성분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국민 건강 증진과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성민 기자

전주대, 어린이 요리교실·팜투 테이블 운영

건강한 식습관 형성

전주대학교 한식조리학과는 '어린이 요리교실'과 '팜투 테이블' 강의를 통해 지역 어린이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 교육과정은 농장을 방문해 식재료를 관찰하고 수확하며 간단한 음식을 만들어 보는 팜투 테이블과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조리법을 해보는 어린이 요리교실로 구성돼 있다.

이들 과정을 통해 식재료를 이해하고 조리활동을 통해 수리, 과학적 이해를 함께 진행하며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또한, 어린이 교육과 더불어 유치원·초등교사를 대상으로 맞춤형 어린이 조리 교육을 운영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6월 말부터 8월까지 진행되며 온라인

을 통한 이론교육과 실기교육 및 인문학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을 수료한 전문 인력은 한국 식문화 교육협회 아동요리 지도사 자격증과 전주대학교 총장명의 수료증이 제공된다. 이 과정을 수료한 교사들은 향후 지역 내 학교와 공공기관 등에서 어린이 조리 교육 전문가로 활동하게 된다.

한식조리학과 정혜정 교수는 "이번 생태전환 특색프로그램을 통해 전주 어린이들의 건강한 먹거리와 음식을 통한 건전한 정신을 기르도록 교육하고자한다"며 "또한 맞춤형 어린이 조리 교육을 운영할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식생활 분야 전문성을 갖춰 각급 학교에서 식생활 교육의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최성민 기자

계곡/강에서 물놀이 안전수칙



1. 물놀이 금지구역에
들어가지 않기



2. 다이빙 금지등
주의사항 표지판
확인하고, 실천하기



3. 일기예보
확인하기



4. 신발과 구명조끼
착용하기



정읍시 인구사랑 캠페인, 지역 새마을금고 동참

정읍시가 인구 10만명 유지와 생활인구 50만명 달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인구사랑 범시민운동'에 새마을금고가 힘을 보태며 캠페인 확산에 탄력을 받고 있다.

시는 지난 6월부터 '시민이 힘이다! 정읍의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인구사랑 범시민운동 릴레이 캠페인을 본격화했다. 지난 15일에는 정읍새마을금고(이사장 김석주), 연지새마을금고(이사장 유연천), 상명새마을금고(이사장 안연이)가 동참하며 지역 사회의 인구 증가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인구는 정읍의 미래를 지켜낼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며 "인구 감소 문제는 행정만의 몫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다. 실거주 미전 입자의 주소 이전과 생활인구 확대 등 인구사랑 범시민운동에 시민과 기관,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

제8회 귀농귀촌 행복 박람회, 군산 농촌 매력 알린다

군산시가 '제8회 대한민국 귀농귀촌 행복 박람회'에 참가, 지역의 차별화된 농업정책과 관광자원 적극 홍보에 나선다.

오는 18일~21일 일산킨텍스에서 열리는 박람회에서 시는 △귀농·귀촌 정책 안내 △군산시 대표축제 및 관광자원 안내 △군산시 대표 농특산물 홍보 등을 집중적으로 할 계획이다.

특히 귀농 활성화를 위한 상담 부스 운영으로 도시민들에게 △군산의 실질적인 정착 지원 정책 △농촌 생활 정보 △창업 및 주택 지원 등 맞춤형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가 귀농귀촌을 꿈꾸는 도시민들에게 군산의 실질적인 정착 지원 정책과 농촌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춰 다양한 지원과 홍보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 어른들이 그린 '인생의 색' 시청 로비서 미술 전시

정읍 어른들이 직접 그린 미술작품이 시청 로비에 전시돼 시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성공회행복노인복지센터는 16일,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의 일환으로 '인생스케치' 미술작품 전시회를 개최했다. 전시회는 정읍시청 1층 로비에서 열렸으며,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도록 오는 18일까지 운영된다.

이번 전시는 올 상반기 동안 어른들이 참여한 사회참여형 미술 자조 프로그램의 결과물로, 파란모마토 미술학원(원장 이승연)의 전문적인 지도를 받아 어른들이 하나하나 정성껏 완성한 작품들이 다채롭게 전시됐다. 작품마다 삶의 흔적과 정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관람객들에게 따뜻한 울림을 전하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어르신들의 열정과 노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어르신들의 안전한 삶과 활발한 사회참여를 위해 시에서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새만금 RE100 산단 최적지"

대규모 재생에너지 인프라 신속한추진가능

군산시는 새만금국가산업단지가 국가적 과제인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고,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RE100 산단을 곧바로 추진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새만금국가산업단지는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기후 위기 대응 흐름 속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지역 균형 발전을 동시에 견인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다.

군산시는 지난 10일 대동령실에서 발표한 'RE100 산업단지 추진방안'에 맞춰, 새만금국가산업단지가 RE100 산업단지의 최적지임을 분명히 하고, 조속한 지정과 국가적 지원을 요청했다.

군산시는 새만금산단이 대규모 재생에너지 인프라, 즉각적인 사업 추진 가능성, 글로벌 투자유치 최적 입지 등 3

가지 경쟁력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 대규모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새만금국가산업단지는 인근에 7GW 규모의 대규모 재생에너지 인프라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미 전국 최대 규모인 육상태양광 300MW 사업을 완공하여 재생에너지를 생산 중이다.

풍부한 태양광 및 해상풍력 자원을 바탕으로 공공주도로 1GW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의 ESG 경영 요구와 RE100 수요에 완벽히 부합하는 산업단지로 성장 중이다.

△ RE100 산업단지 즉각 추진 가능
새만금국가산업단지는 이미 5·6공구에 RE100 선도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새만금 산업용지는 재정을 따로 투입하지 않고도 RE100 산단을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는 정부와 기업 모두에게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이점이며, 국가 차원의 신속한 RE100 정책

실행에 가장 부합하는 대상지이다.

△ 글로벌 RE100 기업 투자유치 최적지
새만금국가산업단지는 트라이포트(항만·공항·철도) 물류 인프라를 완벽하고 있으며,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되어, 글로벌 첨단기업과 RE100 참여 기업들의 매력적인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다.

군산시는 새만금국가산업단지가 RE100 산업단지로 지정될 경우, 전북을 중심으로 서남권 산업벨트 재도약은 물론,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첫째, 글로벌 RE100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수출시장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둘째, 대규모 일자리 창출과 첨단·친환경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능해지며, 셋째, 지방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 구축이라는 국가균형발전 모델을 새롭게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 아이 돌봄 체계 365일 24시간 계속된다

0세~초등 연령별맞춤 지원

익산시가 365일 24시간 빈틈없는 아이 돌봄 체계 가동에 나섰다.

나은정 익산시 복지국장은 16일 브리핑에서 "맞벌이나 고대 근무를 하는 가정, 긴급 상황 등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는 공적 돌봄을 실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는 영아부터 초등학교까지 모든 아동을 아우르는 촘촘한 돌봄 체계를 통해 지역 아이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 아이돌봄서비스 일시 연계 및 긴급 돌봄서비스

우선 익산시는 '아이돌봄서비스 일시 연계 및 긴급 돌봄서비스'를 통해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에 대응한다. 대상자는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이며, 24시간 언제든지 예약을 통해 돌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약은 아이돌봄서비스 앱을 통해 가능하며, 일시 연계는 4시간 전, 긴급 돌봄은 2시간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돌보미 연계는 인공지능(AI) 자동 배정 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이뤄진다.

△ 지역아동센터 전복형 특별돌봄서비스

갑작스럽지 않은 일상에서의 지속적인 돌봄도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 5개소에서 운영되는 '전복형 특별돌봄서비스' 덕분이다. 이 서비스는 등교 전과 하교 후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든든한 돌봄 지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 육아종합지원센터 '원스톱 통합돌봄'

익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16년 전복 최초로 야간 시간대 보육을 도입한 이후, 현재는 주말·공휴일까지 돌봄을 확대해 운영 중이다. 최근에는 대상 아동을 초등학교 6학년까지 전학년으

로 확대해 어린 자녀부터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까지 한 공간에서 보육이 가능한 통합 돌봄 체계를 완성했다.

△ 연중무휴·긴급상황에도 빈틈없는 돌봄

지역 어린이집들도 촘촘하게 돌봄망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익산에서는 현재 시간제보육 독립반 7곳, 통합반 14곳, 야간연장 어린이집 65곳이 운영돼 돌봄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하나돌봄어린이집인 '익산어린이집'은 주말·공휴일에도 돌봄 공백이 없도록 지원하며, 긴급 상황에서 사전 예약 후 횡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올해 전북특별자치도 주관의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전북형 SOS돌봄센터' 사업의 경우 접근성과 안전성을 모두 갖춘 당동어린이집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전국 최고 수준 '기적의 놀이터' 개장

총 7개 테마 공간

정읍시가 전국 최고 수준의 창의 놀이터로 주목받는 '기적의 놀이터'를 16일부터 시범 운영하며, 본격 개장을 앞두고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시는 이날부터 8월 말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이용자들의 만족도와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완 사항을 점검한 뒤 9월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읍시 기적의 놀이터'는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어린이들이 스스로 놀며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도록 설계된 참여형 놀이 공간이다. 쌍암동 내장산문화광장 일원에 약 1만 9000㎡



정읍시 기적의 놀이터 전경

규모로 조성됐으며, 자연과 어우러진 넓은 부지 위에 총 7개 테마 공간이 펼

<사진=정읍시>

쳐진다.

/정읍=김정인 기자

의료·요양·복지 하나로…익산시, 통합돌봄망 가동

문화활동 등 열린 공간 재탄생

익산시가 '아픈 곳까지 찾아가는 돌봄'을 선제적으로 시작했다.

익산시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시범 사업을 본격화하며, 의료·요양·복지가 하나로 연결되는 지속 가능한 돌봄 생태계 조성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2일 '익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노인복지과 내에 '통합돌봄계'를 신설했다. 보

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통합 돌봄 전담팀 구성과 함께 간호직 인력 배치, 읍면동 담당자 지정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졌다.

시는 이달 내로 보건의료단체, 복지기관, 학계,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민관학 통합지원협의체'를 공식 출범 시킬 예정이다. 협의체는 대상자 발굴, 서비스 품질 향상, 자원 연계, 홍보·교육 등 전방위적 역할을 수행하며, 통합 돌봄의 중심축으로 기능하게 된다.

아울러 시는 오는 9월까지 장기요양재가급여자와 노인맞춤돌봄 중점군을

대상으로 전수 욕구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통합돌봄계가 주관하며, 읍면동과 민간기관 등이 가정방문·상담 형식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시는 통합 돌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유관 사업과 접점을 넓혀, 현장에서 바로 작동하는 돌봄 체계로 발전시키고 있다. 실제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장기 요양 재택의료 센터 시범사업'과도 긴밀히 연계해, 의료와 돌봄이 현장에서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익산시, 민생 쿠폰 맞춤 지원

전담팀 가동 행정력 집중

익산시가 신속하고 정확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해 5대 전략을 세우고, 시민 중심의 맞춤 지원에 주력한다.

익산시는 △전담팀 가동 △읍면동별 접수 창구 △찾아가는 접수 창구 △콜센터 상담 도우미 △편리한 다이로움 앱 신청 5대 전략을 통해 모든 시민이 불편 없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도록 적극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오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1차 우선 지급이 시작된다. 비수도권인 익산의 경우 추가 지원분 3만 원이 반영돼 시민 1인당 최소 18만 원부터 최대 43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소비 쿠폰은 지역화폐(다이로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원하는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사용기한은 오는 9월 12일까지다. 이후 9월 22일 이후부터 2차분(상위 10% 제외) 1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역화폐 다이로움의 경우 앱을 통한 편리한 신청·충전이 가능해 많은 시민의 이용이 예상된다. 다이로움 앱 기존 사용자는 별도 인증 절차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보유 중인 지역화폐와 합산 결제가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는 각 카드사 누리집이나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작일인 21일부터 25일까지는 요일제 방식으로 운영된다. 출생 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요일제 기간 이후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요일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군산시, '2025년 제1차 새만금발전협의회' 개최

제4기 위원 위촉·새만금 현안 논의

군산시가 16일, '2025년 제1차 군산시 새만금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새롭게 구성된 제4기위원을 위촉하고, 새만금 사업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김영민 군산시 부시장을 비롯해 관계 전문가, 지역 시민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새만금항원포트 지정 추진 현황 △향후 새만금 관할구역 결정 대응 △대통령 공약에 따른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대응 등 핵심 이슈를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위원들은 새만금신항 방파제 관할구

역 결정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군산시의 항만·산업시설 운영 경험과 기능적 연계성, 매립지 주민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명확한 판단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이를 위한 관련 법적 정비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김영민 부시장은 "오늘 회의를 통해 제안된 다양한 의견들은 군산시의 새만금 정책 추진에 있어 중요한 자침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새만금발전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꾸준히 소통하며, 새만금과 군산이 상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발전 성과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폭염 대비 현장 행정으로 앞장

정읍시가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대응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맞춤형 종합대책을 가동하며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있다.

시는 16일 우선 폭염에 취약한 690세대에 선풍기를 지원해 냉방 여건을 개선하고, 경로당 728개소에 읍·면·동장이 직접 수박과 커피를 전달하며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세심히 살폈다.

사회적 고립이나 건강관리가 어려운 2400여 세대에 대해서는 개별 안부 확인을 실시해 위기 상황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돌봄도 눈에 띈다. 시는 사회적 고립가구 113세대에 AI 기반 안부확인서비스 '네이버 클로바 케어콜'을 적용해 주 1회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폭염 대응 지원사업은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특히 취약계층의 건강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위기 가구에 대한 선제적 관리와 복지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고등학생 진로 설계 지원으로 인재 '쑥쑥'

익산시가 교실과 산업 현장을 연결하는 실무 중심 교육으로 고등학생들의 진로 설계를 돕고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인재를 양성한다.

익산시는 청소년의 진로 미결정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산업 수요에 맞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고등산학관 커핑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하나로 지난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예산 2억 원을 투입해 운영된다.

지역 특색화고와 일반고 학생을 대상으로 △기업탐방 △진로·취업 캠프 △지역 기업 이해 교육 △직무 특화 취업 연계 동아리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실질적인 진로 설계와 취업 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 탐색 기회를 넓히고, 지역 기업이 요구하는 실무형 역량을 갖춘 청년 인재를 육성해 지역 정착률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고창군, 지역상품권 사용처 확대

농협 농자재판매장7개소 고창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18일부터 사용 가능

고창군이 농협 농자재판매장 7개소를 고창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추가 등록하고, 오는 18일부터 사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 개정안'에선 연 매출 30억원 초과 사업장 중 민간 농자재 판매소가 없는 면 지역의 농협 농자재판매장 등에서도 지역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이에따라 고창군은 고수, 아산, 성송, 심원, 상내, 신림, 부안 등 7개소 농협 농자재판매장을 고창사랑상품권 사용처로 등록 완료했다.

특히, 오는 21일부터 신청·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고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신청할 경우, 이번에 추가 등록된 농자재 판매장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고창사랑상품권 가맹점은 현재 약 2900개소에 달하고 있다.

고창군은 고창사랑상품권을 상시 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며, 1인당 월 구매한도를 7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민생경

제 회복을 위해 20% 특별할인을 시행했으며, 상반기에 총 450억원 규모의 상품권이 발행돼 군민들의 생활경제 부담을 줄이는 한편,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사랑상품권의 사용처가 확대됨으로써 군민들의 사용 편의가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농자재 구입 등 생활 밀접 분야에서도 고창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지역 내 소비 활성화와 함께 소상공인과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권익현 부안군수 “관광자원 홍보 강화” 당부

“휴가철 관광객 유치 지역 경제 활성화 만전” 주문

권익현 부안군수가 여름 휴가철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자원 홍보 강화를 당부했다.

권익현 군수는 최근 열린 주요 간부 회의에서 “부안은 아름다운 해양 관광지와 졸포만 노을빛 지방정원, 변산 마실길 등 사계절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다양한 매력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지역”이라며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부안의 관광자원을 널리 알리고 더 많은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SNS·블로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숙박·맛집·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한 관광코스와 교통·편의정보 등 실질적으로 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도 함께 제공해 여름 휴가철 더 많은 관광객이 부안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권익현 군수는 “정부가 지난 14일부터 공공기관이 보유한 체육시설과 회의실을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등을 통해 검색하고 예약할 수 있도록 공개방자원 서비스를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며 “관과소에서는 시설물의 운영시간, 예약 가능 일자, 이용요금 등 관광객과 동호회 등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정비해 달라”



권익현 부안군수

고 지시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 고인돌 유적, 유네스코 세계유산 가치 담는다

‘고창 세계유산 고인돌 박물관’으로 명칭 변경

전북 고창군이 ‘고창 고인돌 박물관’의 명칭을 ‘고창 세계유산 고인돌 박물관’으로 변경해 공식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명칭변경은 고창 고인돌 유적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라는 국제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박물관의 정체성과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고창군은 그간 2008년 고창 고인돌 박물관이라는 이름으로 개관해 지역민과 관람객에게 친숙하게 다가가며 다양한 전시, 체험·교육 활동을 펼쳐왔다.

이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라는 국제적 위상을 명칭에 반영해 국내외 관람



객에게 명확한 문화적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최순필 고창군 세계유산과장은 “고창 고인돌 유적이 지닌 세계유산으로서의 역사적·학술적 의미를 더 깊이 알리는

게기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유산을 기반으로 한 교육·체험·관광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새만금항 신항 실증단지 구상 용역 착수

내부개발 지원·환황해권 거점항만 육성 방안 모색

김제시(정성주 김제시장)가 새만금항 신항의 내부개발 지원과 환황해권 거점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시는 16일 김희옥 부시장 주재로 관계 공무원을 비롯해 시의회, 관계기관,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새만금항 신항 친환경 포트체인 산업 실증단지 구상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새만금 2호 방조제 전면부 해상에 조성중인 새만금항 신항은 새만금 내부 개발 지원과 동시에 환황해권 거점항만 육성을 목표로 2030년까지 5만톤급 6선석, 2040년까지 3선석을 추가해 총 9개 선석으로 조성될 예정으로 내년 하반기 2선석으로 조기개항을 앞두고 있다.

앞서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지난 5월 중앙항만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기존 ‘새만금신항’을 ‘새만금항 신항’으로 명칭을 변경함과 동시에 새로운 항만분류체계에 따라 ‘새만금항 신항’과 ‘군산항’은 ‘새만금항’이라는 광역항만 아래 동등한 지위를 부여받게 되었고, 이날 결정으로 ‘새만금항 신항’은 급변 내 공식적으로 국가관리무역항으로써 지위를 부여받게 돼 26년 하반기 개항을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정부는 새만금신항을 비롯한 12개 신항만의 중장기 개발방향 설정과 변경사항 반영을 위해 제3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고시를 앞두고 있으며 각계 전문가들과 김제시에서는 새만금항 신항의 안정적인 항만운영과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새만금 내부개발과 전북 글로벌 푸드허브 등과 연계한 초저온 포트체인 및 그린수소 산업 도입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김제=온봉기 기자

김제시, 고액기부자 예우·기부문화 확산

나눔명예의전당 제막식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아름다운 기부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김제시 나눔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고 제막식을 개최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제막식은 16일 시청 1층 로비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1억 원 이상을 기부한 개인 및 기업의 뜻있는 나눔을 기리기 위한 자리로, 지역사회에 기부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정성주 김제시장을 비롯해 한명규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김제 지역의 아너소사이터 회원, 나눔명문기업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1부 행사는 전북 제1호 나눔명문기업으로 선정된 ㈜참고을(대표 김윤관)에게 실버 등급 현판이 전달됐다.

참고을은 지난 2019년부터 매년

1억 원씩 기부해 꾸준히 지역사회에 공헌해 왔다. 이어진 2부는 참석자들이 제막 퍼포먼스를 함께하며, 나눔 도시 김제를 향한 공동의 의지를 다졌다.

한명규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은 “오늘 제막식은 아너소사이터 회원들의 지속적인 나눔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표현”이라며, “나눔의 물결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김제시에 꾸준히 기부해 주신 회원들에 감사드린다”며 “기부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참석한 아너소사이터는 1억 원 이상을 기부한 개인 고액기부자 모임으로, 현재 전북에는 총 108명, 김제에는 10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

/김제=온봉기 기자

김제시-새만금개발공사, 협력체계 구축

새만금 산단수변도시 조성 협약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새만금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수변도시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나섰다.

시는 새만금개발공사(사장 나경규/이하‘공사’)와 16일 시청에서 새만금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수변도시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3월 31일 새만금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공사로 지정되고, 4월 18일 스마트수변도시 조성사업의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김제시로 결정됨에 따라 양 기관이 협력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체결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새만금 제2산업단지 및 수변도시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협의를 통해 현안을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나경규 공사 사장은 “김제시와의 협력을 통해 새만금 제2산업단지와 수변도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래형 산업단지와 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내·외 우수기업 유치와 혁신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새만금 제2산업단지와 수변도시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특히 “새만금 제2산업단지가 대통령 공약인 RE100 국가산업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두 기관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군, 젓소농가 맞춤형 솔루션 ‘호응’

20명 대상 사양관리 교육

고창군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축산농가에 종합 솔루션을 제시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6일 고창군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최근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의 협조로 젓소농가 20명을 대상으로 젓소 사양관리 분야 ‘전문가 종합컨설팅’이 진행됐다.

컨설팅은 사전 기술 수요 조사를 통해 분야별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팀이 진행했다. 축산농가 컨설팅 사업은 올해로 15년째 이어지고 있다.

또한, 현장기술 지원이 필요한 농

가는 추후 현지방문을 통한 전문컨설팅을 통해 당면한 애로기술을 해결할 계획이다.

축산원에서 추진하는 권역별 맞춤형 컨설팅은 축산물 수입 증가, 사료비 상승 등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사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오성동 고창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젓소 사양관리 교육을 통해 농가들이 현장에서 직면한 다양한 기술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생산성 향상과 지속 가능한 축산 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고창군, 7월 정기분 재산세 28억9700만원 부과

31일까지 납부

고창군은 주택·건축물 등에 대한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8억9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부과액 대비 3.4% 증가한 수치다.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주택·토지·선박 등 부동산을 소유한 군민에게 부과된다.

7월 재산세는 주택 2분의1, 건축물, 선박에 대해 부과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 2분의1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단, 재산세(주택) 금액이 20만 원 이

하인 납세의무자에게는 7월에 전체 세액이 고지된다.

올해도 1가구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주택가격 3억 원 이하 43%,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 44%, 6억 원 초과 45%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과세표준에 적용하고, 주택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인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과세구간별 0.05%씩 인하된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납세자는 위택스, 모바일 위택스 앱, 가상계좌 이체, 전국 금융기관의 ATM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청년자립도전사업단 두번째 공무원 배출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지원하는 전북김제지역활센터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스타트업’에서 2025년도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가 나오며, 두 번째 공무원 배출이라는 기쁜 소식을 전했다.

이번 합격의 주인공인 신모(26)씨는 지난 2024년 7월부터 전북김제지역활센터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스타트업’에 참여하게 되었고, ‘스타트업’과 함께 개인별 자립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소양 및 직무교육, 진로교육, 그리고 최적의 공부 환경 (공부방) 제공과 같은 다각적인 지원을 받으며 공무원 시험 준비에 전념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지난 4월 국가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해, 약 1년간의 열정과 노력 끝에 지난 6월 최종 합격이라는 소중한 결실을 맺었다.

전북김제지역자활센터 이석규 센터장은 “이번 공무원 합격 소식은 우리 센터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매우 기쁜 소식”이라며,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큰 동기가 될 것이며, 센터는 앞으로도 이들이 변화하고 성장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더 많은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군, 일반음식점820개소대상 여름철 식중독예방 위생전수점검

부안군이 2025년 여름철 식중독 예방 위생 전수 점검을 지난 14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관내 일반음식점 82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및 6월 신규 영업신고 업소 등은 제외된다.

군은 위생팀 2명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4명 등 총 16명으로 7개 점검반을 편성해 여름철 주요 식중독 사전예방법 교육 및 현장 위생 지도 점검을 진행 중이다.

군 관계자는 “여름철은 식중독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로 위생 관리 철저 및 식중독 예방 수칙 준수 등이 중요하다”며 “식중독 예방 수칙을 준수하고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시, 청소년 아이디어 연계 자전거여행 관광상품 개발 특강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김제 DMO(단장 최재문)와 함께 김제여자고등학교 정철연구 동아리 ‘김제 파수꾼’ 학생들을 대상으로 ‘김제 황금 트래블’ 자전거 관광상품 개발사업에 관한 특강을 열었다.

이번 특강은 올해부터 시와 DMO가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는 ‘산·들·강·바다 물길따라 자전거여행’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역의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재문 단장은 강의를 통해 “김제의 만경강과 동진강 등 훌륭한 수계자원을 자전거도로로 연결하고 새만금까지 잇는 ‘해양내륙 순환형 코스’를 완성해, 김제를 전북 서부권의 자전거 여행 허브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선보였다.

이번 사업은 로컬푸드와 김제의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체험형·체류형’ 지역관광을 지향하며, 최근 관광 트렌드인 ‘저탄소·친환경 여행(ESG)’가치를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박진희 문화관광과장은 “이번 자전거 여행 프로젝트는 미래 세대인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관광의 미래를 그려나가는 첫걸음”이라며,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해 김제만의 특별한 생태관광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순창사랑상품권 구매 한도 대폭 확대

7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농협·마트 가맹점 제한도 완화

순창군은 지역사랑상품권(순창사랑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를 1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일부 지역에 한해 가맹점 제한을 완화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에 따라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업체는 가맹점 등록이 제한됐으나, 군은 사용자 제한적인 읍·면 단위의 특수성을 반영해 일부 지역에 한해 예외를 적용한다고 전했다. 이러한 조치는 민간 농자재판매장이나 마트·슈퍼·편의점

이 없는 농촌 지역에서도 군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대한 데에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순창사랑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진 농협 농자재판매장은 △인계 △적성 △유등 △풍산 △금과 △팔덕 면에 위치한 지점이며, 하나로마트 사용이 가능해진 지역은 △인계 △유등 △풍산면으로 확대됐다.

이와 함께 군은 군민들의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를 기존 7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적립 한도도 기존 월 7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확대 운영한다. 단, 모바일 및 카드형 상품권에만 적용되며, 지류형 상품권은 현재 소진돼 추가 구매가

불가능하다.

상품권 구매는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CHAQ)' 앱을 통해 가능하며, △카드형 상품권은 관내 농협,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를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다.

군은 구매한도 확대에 따라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해 구매 및 환전 이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이나 환전 과다 업소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통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상품권 구매한도 확대를 통해 군민들의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순창=박지현 기자



제20회 순창장류축제 슬로건 수상작 선정

‘순창의 빛깔, 세계를 물들이다’ 대상…전국 공모로 5건 선정

순창군은 오는 10월 열리는 제20회 순창장류축제를 앞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한 슬로건 중 수상작 5건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 슬로건 공모전은 장류축제의 상징성과 미래지향적 이미지를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슬로건을 발굴하고자 진행됐으며, 총 600여 건의 작품이 접수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대상에는 ‘순창의 빛깔, 세계를 물들이다’가 선정됐다. 이 슬로건은 장류의 고장 순창이 가진 고유

의 전통과 색깔이 세계로 확산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지난해 ‘장담그기’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것을 반영해 국제적인 문화유산으로서 순창 장류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최우수상 1건, 우수상 1건, 장려상 2건 등 총 4건이 추가로 선정됐으며, 수상자에게는 소정의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한편, 제20회 순창장류축제는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순창전통고추장민속마을과 발효테마파크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 고산 ‘찾아가는 농촌서비스’ 맞춤형 교육·체험에 마을 활기

완주군마을통합마케팅지원단이 고산면 화정마을과 관덕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농촌사회서비스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며, 맞춤형 교육·체험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6일 완주군에 따르면 화정마을은 4회차까지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으며, 관덕마을은 지난 15일, 3회차를 진행해 현재 4회차만 진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사업은 사회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과소와 마을을 직접 찾아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마을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교육과 체험을 결합한 실생활 밀착형 프로그램으로 주민 만족도가 높다.

이번 프로그램은 총 4차시로 구성됐으며, 일상에서 접하기 어려운 생활교육과 신체·정서 돌봄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1회차는 ‘노인인권교육’과 ‘심리아트체험’을 통해 노인의 권리 의식 함양과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2회차는 ‘치매예방교육’과 ‘심리아트체험’으로 인지기능을 지원했다.

3회차에서는 ‘성폭력 예방교육’과 ‘제과제빵 체험’을 병행했다. 4회차는 ‘보이스피싱 예방교육’과 ‘아로마 오일체험’을 진행했다. 심리적 치유와 사회적 소통의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노인 인권, 범죄 예방 등 실생활에 필요한 교육 내용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설계돼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남해군 공무원직노조 고향사랑기부금 상호기부

순창군은 16일 전국자치단체 공무원직본부 소속 순창군지부(지부장 홍영기)와 남해군지부(지부장 이장근)가 양 지자체 간 우호 교류 증진과 상생 발전을 위해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300만 원씩 상호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양 지부 간의 지속적인 교류에서 비롯됐다. 순창군지부 공무원직노조 간부들은 “2025 고향사랑 방문의 해”를 맞아 지난 3월 남해군에서 1박 2일 간부수련회를 개최했으며, 이에 화답해 남해군지부 공무원직노조 간부들도 최근 순창군을 방문해 간부수련회를 진행하며 우의를 다졌다.

이장근 남해군지부장은 “앞으로도 순창군과의 연대를 이어가며 지속적인 협력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기부를 계기로 양 지역 간의 교류와 협력이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 장마철 앞두고 하수도 4.1km 정비 본격화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025년 재난대비 하수관로 준설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조산동과 향교동 일원에 위치한 관내 공공하수관로에 대한 정비작업으로, 오는 7월 말까지 총 연장 4.1km 구간에 대한 우·오수관로를 준설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65백만원으로, 전액 재난대비 특별교부세로 충당된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이번 하수도 준설사업은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시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밝혔다.

남원시는 앞으로도 재난에 강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반시설을 보강하고, 각종 재난에 대비한 안전 대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시, 민생쿠폰 수급 안내 ‘국민비서’ 이용 독려

지급대상, 금액 등 확인 가능 사전 안내로 신청 혼선 최소화

남원시는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앞서, 지급 대상 및 금액을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는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이용을 시민들에게 적극 당부했다.

이번 소비쿠폰은 1인당 기본 15만 원이 지급되며, 차상위·한부모가정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 여기에 남원시는 인구감소지역으로 5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지원금은 오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이달 14일부터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등 17개 주요 앱 또는 국민비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알림을 신청하면 7월 19일부터 지급 대상 여부와 금액, 신청 방법, 사용기한 등을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알림서비스가 지원금액이 개인별로 다른 소비쿠폰 특성상, 본인의 대상 여부와 지급액을 미리 확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급금액 변경자에 대한 추



남원시는 민생소비쿠폰 지급에 앞서 사전에 대상 및 금액 사용자 등을 안내받을 수 있는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이용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사진=남원시>

가 알림, 미신청자 및 미사용자에 대한 기한 알림도 순차적으로 발송될 예정으로, 시민들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시민들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각 카드사 앱·홈페이지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지역상품권 Chak)을 통해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카드·신용카드)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은 행정

복지센터를 방문해 선불카드 방식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은 배부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한편, 남원시는 최근 정부 정책을 반영한 스미싱 문자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도 당부했다. 특히 “정부, 카드사, 지역상품권사는 절대 링크(URL)가 포함된 문자를 발송하지 않으며, 국민비서 알림도 문자 또는 카카오톡 알림톡으로만 발송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유희태 완주군수, 기재부 방문 국비확보 총력

수소차안전센터·재해 정비 등 981억 핵심 현안 예산 건의

유희태 완주군수가 16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전면 활동에 나섰다.

이날 유 군수는 기재부를 방문해 주요 간부 등을 차례로 만나, 민선8기 군정 주요 현안 사업의 국비 반영을 적극 건의했다.

주요 건의 사업은 △수소상용차 전용 안전검사센터 구축사업(81억 원) △완주 운산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292억 원) △완주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258억 원) △사회적경제 인재개발원 건립(350억

원) 등 수소 산업, 재해·환경 분야 개선, 사회적경제 등 민선8기 핵심 전략 사업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

수소상용차 전용 안전검사센터 구축사업은 정부의 수소버스 2만대 보급 계획에 따라 수소차의 운행 안정성과 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이다. 유 군수는 국내 유일의 수소상용차 생산지인 완주의 역할을 강조하며, 탄소중립 실현과 글로벌 수소도시 도약을 위한 생태계 구축 필요성을 설명했다.

완주 운산지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장마철 우기와 국지성 호우 등으로 상습침수가 발생하는 지역의 재해 발생의 근본적인 위험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하천 정비사업이다.

/완주=김명곤기자

유 군수는 화산면 운산지구의 ‘23년, ‘24년도 연속 장마철 호우로 인한 호우 피해 상황을 설명하면서, 호우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예방을 위해 기재부의 적극적인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완주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사회적경제 인재개발원 건립사업 등 환경과 사회적경제 분야 군정 주요 현안 사업도 빠짐없이 건의하며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전달했다.

유 군수는 “오는 8월까지 이어지는 심의기간동안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완주군의 미래 도약을 위한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완주군, 물놀이 사고 재발 방지 ‘전면 재점검’

동상면 사고 후 안전요원 확대 유관기관 핫라인도 가동

완주군이 최근 동상면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물놀이 사고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물놀이 위험지역에 대한 전면 재점검과 안전요원 운영체계 보완 등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16일 완주군에 따르면 군은 여름 물놀이 성수기(6월 1일~8월 31일)를 맞아 군민과 이용객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총

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물놀이로 인한 인명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부터 물놀이 관리 및 위험지역에 대한 전수조사와 점검을 완료한 데 이어, 올해 4월에는 ‘2024 완주군 수상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특히, 본격적인 물놀이철에 앞서 지난 6월에는 주요 물놀이 관리지역인 운주면 하천계곡 인근 상가 대표자 간담회를 열고, 유관기관 실무자 회의도 잇따라 개최하는 등 민·관 협력 기반을 다졌다.

/완주=김명곤기자

군은 지난 12일부터 8월 17일까지를 ‘물놀이 안전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고산면·운주면·동상면 등 주요 물놀이 안전관리구역 19개소에 안전요원 43명(고정배치 38명, 순찰요원 5명)을 배치해 집중 관리에 나서고 있다. 안전요원은 사전 교육을 이수하고 근무 초소에 배치돼 실시간 현장 대응에 임한다.

또한 완주소방서, 완주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핫라인을 구축해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남원 유곡두락리 고분서 가야 은장 마구 출토

18일 발굴조사 현장설명회 전북 동부 가야사 규명 기대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의 북원정비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한 발굴조사 현장설명회를 18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굴조사는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의 허가를 받아 남원시(시장 최경식)가 추진하고 (재)전주문화유산연구원(원장 유철)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2기의 고분(20·24호분)에서 가야시대 지배계층의 상징물인 통형기대와 은으로 장식된 말 갑옷새가 발견됐다.

발굴조사 된 고분의 분본은 직경 20m 내외이며, 24호분의 경우 주위에 주구(도랑)가 시설됐다. 분본 축조 시 토제(흙독), 구획성토, 토괴(흙덩어리)

등의 축조기술이 확인됐다. 매장시설은 ‘수혈식 석곽묘’로 바닥에는 소형합석과 천석을 깔아 시신을 안치하고 유물을 부장하는 시설을 마련했다.

매장시설 내부에서는 토기류와 함께 은으로 장식된 재갈, 말띠꾸미개, 말띠드리개, 말안장 등의 마구류가 부장된 상태로 출토됐다. 특히, 은장신염형염형(銀裝心葉形杏葉)은 전북지역 가야 고분에서는 처음으로 출토돼 주목된다. 이외에도 24호분 주구에서는 지배층의 상징물로 알려진 통형기대(筒形器臺)가 출토됐다.

금번 발굴조사로 고분의 구조와 성격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되면서 전북 동부지역의 가야 묘제 연구에 있어 중요한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제31회 남원시민의 장 후보자 공개 모집

6개 부문 남원 거주·출신 내달 11일까지 추천 접수

남원시(시장 최경식)의 명예를 드높이고 지역발전에 헌신한 분들을 위한 최고 영예의 상 제31회 남원시민의 장 후보자를 이달 14일부터 오는 8월 11일까지 공개 모집(추천) 한다.

남원시민의 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시 발전에 기여한 분들을 기리기 위해 총 6개 부문으로 나누어 후보자를 추천 받는다.

△문화장(교육,예술,언론 등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한 분) △체육장(남원체육진흥 및 위상 제고에 기여한 분) △호형장(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

랑하며 미풍양속을 실천해 주민의 칭송을 받는 분) △봉사장(지역사회 봉사활동으로 귀감이 되는 분) △산업노동장(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한 분) △애향장(충향인으로서 고향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 분)으로 부문별 1명씩을 선정할 계획이다.

후보자 추천 자격은 남원시에 거주하거나 출신지로 해당 분야에서 공적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각 사회단체장, 유관기관장, 시청 관과소장 및 읍면동장 등 추천권자의 추천을 통해 시청 행정지원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부안 지사협, 복지 우수사례 공유

교류활동으로 복지모델 확산

완주군 융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소병오, 실선호)가 지역 복지 우수사례 공유의 장을 열어, 타지역과의 상호 교류를 통해 맞춤형 복지모델 확산에 나섰다.

지난 15일 부안군 부안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한동일, 김경) 위원 15명이 융진읍을 방문해 지역복지 특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방문한 위원들은 각 지역에서

추진 중인 특화사업을 발표하고 상호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사업 추진 사례를 소개하고 노하우와 아이디어를 나누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융진읍에서 아동·청소년을 위해 운영 중인 전용활동공간 ‘그레(yes)센터’를 둘러보며, 청소년 참여 중심의 공간 조성 프로그램 운영 사례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완주군자원봉사센터, 소외계층 아동에 여름 꾸러미 전달

사)완주군자원봉사센터가 16일 폭염에 취약한 소외계층 아동을 위한 '미래행복도시 완주 희망여름 착!착! 나눔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된 1억 2,000만 원의 재원을 바탕으로 전북도내 14개 시·군 자원봉사센터가 공동 참여해 여름형 꾸러미 제작 및 나눔활동으로 추진됐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완주군자원봉사센터 소속 자원봉사자들과 케이워터기술(주)전주사업소 임직원, 완주군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함께 참여해 농산물과 이불을 직접 포장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주)세아베스틸, 군산시에 2억 5천만 원 후원

“세상을 아름답게 기업 정신”

(주)세아베스틸(대표이사 서한석)과 군산시가 저소득층 복지향상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희망나눔 지역복지' 업무협약을 16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주)세아베스틸은 2억 5,000만 원을 후원했으며, 이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설·추석 명절 성품 △장학금 지원 △사회복지시설 지원 △여름·겨울나눔 성품 △연말 이웃돕기 성품 등 다양한 사회공헌에 사용될 예정이다.

성금 후원 외에도 (주)세아베스

틸은 군산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선봉기, 모기퇴치기, 제습제 등 총 2,100만 원 상당의 여름나눔 성품을 함께 기탁했다. 시는 지역 저소득 가정의 건강한 여름나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김동혁 지원본부장은 “세상을 아름답게”라는 기업 정신으로, 앞으로도 세아베스틸은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동행하며, 지속적인 나눔 실천을 통해 모두가 함께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주)세아베스틸대표이사 서한석과 군산시가 저소득층 복지향상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희망나눔 지역복지 업무협약을 16일 체결했다 <사진=군산시>



한국자유총연맹 부안군지회, 홀몸 어르신께 봉사활동

한국자유총연맹 부안군지회(회장 황현대)는 지난 6월부터 오는 11월까지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방문하여 환경정비 및 생필품 나눔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지난 15일에는 회원 20여 명이 동진면을 방문하여 홀몸 어르신 2명의 가사 점검은 물론 집 청소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전달하여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 어르신의 편안하고, 건강한 생활을 도왔다.

황현대 회장은 “앞으로도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노력으로 따뜻한 봉사활동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전주 수한방병원, 전주시에 폭염 대비 선풍기 200대 기탁

“어려운 이웃에 도움 되길”

전주 수한방병원(병원장 임선영)은 16일 폭염 취약계층 및 복지시설 지원을 위한 스탠드 선풍기 200대(약 1000만 원 상당)를 전주시에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선풍기는 저소득 취약계층이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전주 34개 동의 취약계층 78세대와 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다함께돌봄센터 등 지역 복지시설에

전달될 예정이다. 수한방병원은 전주시 덕진구에 위치한 한방의료기관으로, 지난 2013년부터 해마다 꾸준히 봉사를 해오고 있다.

임선영 병원장은 “빨리 찾아온 무더위로 모두가 지쳐 있는 요즘, 이번 선풍기 지원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병원이 되도록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장수군 산서육묘장 윤재석 대표, 백미 20kg 42포 기탁

장수군 산서육묘장 윤재석 대표가 올해도 변함없이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에 훈훈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

윤 대표는 지난 14일 산서면사무소를 방문해 백미 20kg 42포(약 840kg 상당)를 기탁하며, “무더위와 장마로 지친 이웃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따뜻한 뜻을 전했다. 이번 기탁은 윤 대표가 매년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나눔으로, 지역의 저소득층과 노인층 등 취약계층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장수=최진수 기자



군산 착한가게·후원자 성금으로 취약계층에 삼계탕 나눔

본격적인 초복을 맞아, 군산시 조촌동 조정 한마음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황순정)는 관내 독거노인 및 등록 장애인 등 취약계층 100가구에 삼계탕과 총각김치(총 240만 원 상당)를 전달했다.

특히 이번 선물 마련은 관내 착한가게와 후원자들이 모은 소중한 성금으로 진행되어 의미를 더했다.

지난 15일 위원들과 통장단은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해 삼계탕과 총각김치를 선물하며 안부를 살폈다.

/군산=지송길 기자

씨앗인회 진안지회, 취약계층에 아이스 쿨링패드 전달

진안군은 16일 씨앗인회(진안지회장 강규남)에서 200만원 상당의 아이스 쿨링패드 나눔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씨앗인회는 2023년에 회원 40명이 결성한 봉사단체로 매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물품을 후원하고 있다. 올해도 폭염으로 지친 취약계층 세대가 시원한 여름을 지낼 수 있도록 쿨링패드를 후원했다. 전달된 후원물품은 관내 독거 노인가구 등 취약 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진안=전길필 기자

전주 들꽃라이온스클럽, 저소득 아동 후원금 기탁

전주 들꽃라이온스클럽(회장 최임선)은 16일 전주시에서 저소득 아동을 위한 후원금 200만 원을 전달했다.

전주 들꽃라이온스클럽은 국제라이온스협회 356-C(전북)지구의 30여명 여성회원으로 구성된 단체로, 지난 2015년부터 지역 복지시설 후원을 비롯해 소외계층 물품지원, 음식 나눔봉사, 환경정화, 학생 장학금 지원 등 지역사회 공

헌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최임선 전주 들꽃라이온스클럽 회장은 “우리 사회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길 바라는 마음으로 후원하게 됐다”면서 “국제 자원봉사단체로서 앞으로도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및 봉사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영태 기자

정읍시 입암면 어르신께 생닭 300마리 전달

정읍시 입암면 어르신들이 기업 후원과 주민들의 정성으로 여름철 건강한 보양을 위한 특별한 선물을 받았다.

지난 15일, 정읍의 한 기업이 입암면의 어르신들을 위해 생닭 300마리를 후원했다. 이번 나눔은 무더운 여름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따뜻한 배려로, 입암면 새마을부녀회(회장 남정숙)와 청년회(회장 강철원)가 힘을 모아

각 마을에 배부했다.

남정숙 회장과 강철원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르신들이 무더위를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봉사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정재병 면장은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이번 나눔을 계기로 어르신들을 위한 따뜻한 지역문화가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완주군약사회, 드림스타트 아동 구충제 지원

완주군약사회가 드림스타트 아동 및 가족을 위해 650정의 구충제를 후원했다.

완주군약사회는 “미래의 인재가 될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뜻깊은 일에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아이들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 기자



〈一事一言〉



사람이 죽어간다, 제 손으로… 대책이 필요하다

고상만

진실규명 대표

2010년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있었던 사례이다. 그때 수도권 소재 구치소에 수감중인 재소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구치소에 수감중인 재소자가 자살했으니, 교정 당국은 당연히 난리가 났다. 자살 방지 대책이 시급했다. 얼마 후, 법무부가 훈령을 통해 각급 교정 시설에 해결 방안을 전파했다. 그 내용을 듣고 나는 정말 놀랐다. 모든 감옥 내 창문을 모기장으로 촘촘히 막아버리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과연 법무부의 기대처럼 그 후 재소자 자살 문제는 해결되었을까?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우리나라 자살자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여왔다. 대통령실에 ‘자살예방 수석비서관’ 도입 및 ‘대통령 직속 자살 예방부서’ 설치 등을 검토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을 정도이다. 실제로 당선 후에는 보건복지부에 자살 예방과 관련된 정책 방안을 준비하라며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취임 후 첫 국무회의가 열린 6월 5일에는 당시 조흥규 복지부 장관에게 “우리나라 자살률이 왜 이리 높냐?”고 물었다고 한다. 자살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 대통령이 적극 대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알려진 것처럼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 국가’이다. ‘만년 1등’이라는 부끄러운 오명을 얻은지 오래되었다. 출산율은

고작 0.7%에 불과한데, 태어나 한창 일할 나이대인 우리나라 2, 30대 청년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라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2024년 자살자 통계를 보면 더 심각하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자해 사망자는 1만 4439명으로 이는 2011년 이후 13년 만에 최대치라고 한다. 나뉘보면 매일 39.5명이 자살한 것이며, 우리나라에서 1년간 교통사고로 숨지는 사망자의 5배가 넘는 숫자라고 하니 너무도 충격적인 사실 아닌가.

그렇다면 이러한 자살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대책은 무엇일까.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다양한 공약을 제시했다. 먼저 24시간 전문의 상담이 가능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이외에도 공공과 민간이 참여하는 핫라인 24시간 전문의 상담체계, 지자체와 자살예방센터 및 민간기관이 자살 연계된 고위험군 관리, 그리고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5개 국립정신병원 전담 인력 확충 등을 언급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지금까지 나온 역대 정부의 자살 방지 대책과 어떤 차별성이 있을까.

그동안 정부는 자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도로 계획을 수립한 후 실행해 왔으나 크게 다르지 않은 ‘대동소이한’ 실패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이유가 무엇일까. 나는 그 답을 2010년 자살하는 재소자 문제 해결을 위해 ‘창틀을 막아

버린’ 법무부 훈령에서 봤다. 억울함을 호소하며 목을 맨 재소자에게 그 억울함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목을 매지 못하게만 하면 된다는 식의 해법만 제시한 법무부.

하지만 국민의힘 김도읍 국회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입수하여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그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재소자 자살은 24건이나 발생했다. 매년 평균 6명이 자살한 것이다. 창틀을 막는다고 자살을 막을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들이 죽으려 한 진짜 이유는 그대로 둔 채, 자살할 방법만 없애 버리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식의 해법이야말로 얼마나 어리석은가. 나는 자살자가 죽으려 한 이유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려는 노력이 진짜 해결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개인적인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어도 국가가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해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희망을 잃었거나 병이 들었는데 치료받을 돈이 없을 때, 또는 사법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해 삶에 의미를 잃은 사람 등들에게 뭔가 살아야 할 희망의 이유를 국가와 이 사회가 줘야 한다. 그들의 문제를 일일이 전부 해결해 줘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적어도 우리 사회가 ‘죽지 않고 살다 보면 희망이 생길 것이라는’ 믿음은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최소한의 인간적 삶이 보장되는 ‘복지국가’의 길을 가야 한

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패자부활’이 쉽지 않다는 것에 많은 이들이 고개를 끄덕인다. 사회 복지제도가 거의 전무한 이 나라에서 경제적으로 한번 실패하면 다시 헤쳐나오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니 말년에 경제적으로 실패한 이들이 절망하다가 극단적 선택에 내몰리는게 오늘날의 현실이다. 그런 현상이 이제는 2,30대 청년들 사이에서 더 일찍 번져가는 형국이다.

그러니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나라, 그리고 억울함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의로운 사법 시스템을 갖춘 나라를 나는 요구한다. 거기에 더 해 정신과적 연계 상담이 이뤄져야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없이 그저 구치소 창틀만 막아버리는 한심한 정책으로는 잘 적응하며 살아오던 사람까지 죽인다. 그런 어리석은 정책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이재명 정부에서 이전과는 다른 자살 방지 정책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본 칼럼은 시민연론 민들레에 게재될 내용임을 밝힙니다.

외부원고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민주주의 근간 지키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원칙이다. 공무원이 정치에 개입하면 국민 전체에 봉사해야 할 공직이 정파의 도구로 전락하고, 그 결과는 행정의 공정성 훼손과 국민 신뢰의 붕괴로 이어진다. 전복자치도가 새 정부 출범과 내년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공직 감찰에 나선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평가받아 마땅하다.

도는 이달부터 내년 5월까지 약 11개월간 세 차례에 걸쳐 ‘단계별 공직감찰’을 추진함으로써,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정치적 중립 위반과 기강 해이 등의 관행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감찰의 핵심은 정밀성과 선제성이다. 도는 시기별·분야별로 맞춤형 감찰을 실시하고, 특히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는 정치 개입과 중립 위반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감찰반은 본청과 직속기관은 물론, 14개 시군과 각 출연기관까지 포함해 전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1단계 감찰은 여름휴가철과 명절 연휴 기간에 집중된다. 이 시기는 근무지 무단 이탈이나 허위출장, 민원방치 같은 복무 위반 행위가 발생하기 쉽다. 특히 명절과 연말연시를 틈타 벌어질 수 있는 사조적 모임이나 정치인과의 사적 접촉, 편향적 언행 등은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주요 위험 요소인데 이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2단계 감찰은 오는 10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진행되며 수의계약 납품, 유연근무제 악용, 일상 속 불공정, 소극행정 등 행정 신뢰를 훼손하는 비정상적

관행을 집중 점검한다.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더불어 청렴성과 공정성까지 함께 확보하려는 조치다.

가장 민감한 시기인 3단계 감찰은 내년 2월 23일부터 6월 2일까지, 지방선거 직전까지 전개된다. 이 시기는 정치권 줄서기, 특정 후보 홍보, 선거 개입 등 정치적 중립 위반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기다. 도는 SNS를 통한 정치활동, 정당 행사 참석, 후보자 관련 게시물 작성 등 온라인·오프라인을 망라한 정치활동 전반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영향력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지만, 오히려 그만큼 정치적 중립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 자칫하면 지방선거가 지역 행정과 공직을 정치화하는 통로가 되고, 이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된다. 이런 점에서 전북도의 단계별 공직 감찰은 민주주의의 기초를 지키기 위한 제도적 수단으로 기능해야 한다.

전북도는 공직사회 내 정치적 중립성과 청렴성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나아가 감찰 결과와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도 힘써야 한다. 공직자의 정치 중립은 국민을 위한 봉사의 전제조건이며, 그 신뢰 없이는 행정의 정당성도, 정책의 지속 가능성도 담보될 수 없다.

선거를 앞두고 각종 정치적 유혹이 난무하는 시점에서 공직사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끝까지 견지해 주길 기대한다. 그것이 진정한 지방행정의 책무이자, 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문화재열전



안심사 사적비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분류- 기록유산, 서각류, 비
-지정일- 1984년 9월 20일
-시대- 조선시대
-소재지- 완주군 운주면

안심길 372 (완창리)

▲오늘의시

하루만의 위안 / 조 병 화

잊어버려야만 한다
진정 잊어버려야만 한다
오고 가는 먼 길가에서
인사 없이 헤어진 시방은 그 누구던가
그 사람으로 잊어버려야만 한다
온 생명은 모두 흘러가는 데 있고
흘러가는 한 줄기 속에
나도 또 하나 작은

비둘기 가슴을 비벼대며
밀려가야만 한다
눈을 감으면
나와 가까운 어느 자리에
싸리꽃이 마구 핀 잔디밭이 있어
잔디밭에 누워
마지막 하늘을 바라보는 내 그날이 온다
그날이 있어 나는 살고

그날을 위하여 바쳐 온
마지막 내 소리를 생각한다
그날이 오면
잊어버려야만 한다
오고 가는 먼 길가에서
인사 없이 헤어진 시방은
그 누구던가
그 사람으로 잊어버려야만 한다

시인 약력 : 1921년 경기도 안성 출생, 1940년 경성사범학교와 일본 도쿄 고등사범학교 물리학과

과를 졸업했다. 경성사범학교, 서울고 교사에 있어 경희대 문과대 학장을 역임했다. 대한민국 예

술원 회장, 한국문인협회 이사장 등을 지냈다. 대한민국 문학상, 금관 문화훈장 등을 받았다.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25년 7월 17일 목요일 2011년 10월01일 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00022 (발행인) 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www.jeonbuktimes.co.kr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경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 010-9845-4113	군산지국 010-8841-7942	무주지국 010-8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앙지사 010-98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원지사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팔레스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826-8049	
송전지사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경영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식중독 증상

열사, 발열, 복통, 두드러기, 구토

여름철 질병 식중독

◆식중독 예방법

손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세척·소독하기

구분사용하기

보관온도 지키기

지속가능한 농업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는다. 사람을 키우고, 토양을 살리고, 농촌의 일상을 조금씩 바꾸는 시간이 쌓일 때 비로소 가능하다.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기후위기, 고령화, 인력난이라는 삼중고 속에서도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장기적인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장 중심의 맞춤형 전략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시책 평가에서 3년 연속(2022~2024) 전국 최우수 시군에 선정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 농업기반 구축을 위해 김제시가 추진하고 있는 농업정책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김제시, 지속가능한 농업 향한 발걸음

기후위기·고령화·인력난 삼중고 속 현장 중심 맞춤형 전략 추진

자연재해 및 안전사고 대비 지원 강화

최근 기후변화와 이상기상에 따른 농작물 피해 증가로 전체 농산물 생산 규모 감소 및 생산성 저하가 야기되고 있고 농업인의 경영 불안 또한 매년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어려움에 직면한 농업환경을 극복하고 농업인과 시민 모두가 걱정 없는 농정을 실현하기 위해 김제시는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자연재해를 대비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사업 70억원, 농기계 안전사고 등을 대비한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비 지원사업 7억7천8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1만여 명(20만ha)이 가입하고 보험 혜택을 받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22년에는 2,461농가가 81억9천7백만원, 2023년에는 4,423농가 286억7천2백만원, 2024년 724농가 24억4천7백만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으며 자연재해로 인한 신속한 복구와 경영 불안을 해소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상기상에 따른 원예 농가의 냉난방 비용 고충 해결을 위하여 공기열 냉난방 시설 구축, 에너지절감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온습도 및 토양수분 등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환경제어 시스템 구축 등 시설현대화분야에 3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을 꾀하고 있다.

여성농업인 복지 및 영농환경 개선

농촌 사회의 고령화, 인구 감소 등으로 농업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주로 기계화가 어려운 소규모 농업에 종사해 영농 여건은 열악한 현실이다. 김제시에서는 이러한 여성농업인의 영농 여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 중이다.

△농작업편의장비 지원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농번기 돌봄지원 등 7개 사업에 11억 5,600만 원을 투입하고 있다.

특히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은 매년 사업 규모를 확대해 2023년 166대(5.8억원), 2024년 188대(6.5억원), 2025년에는 163대(8.2억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촌 인력 중개센터 운영

김제시는 계절적·단기적으로 발생하는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

절근로자 프로그램과 내국인 인력중개센터를 병행 운영하고 있다.

2024년 기존 외국인 근로자 296명을 92농가에 배치하고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사업(2개소, 40명)을 추진해 농번기 15~16만 원까지 치솟던 인건비를 11~12만 원 수준으로 안정화 시켰으며, 내국인 인력중개센터를 통해 864농가에 총 1만 4,392명의 근로자를 알선, 인력 업체 의존도를 낮춰 농가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사업에 10명을 추가 배정받아 총 50명의 인원이 농가에 일손을 보낸다. 또한 인건비는 지난해보다 1만원 낮춘 10만원으로 책정하여 농가의 부담을 최대한 줄 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전국 1위 논콩 재배지, '논콩 산업 중심지'로 도약

정부에서는 쌀의 적정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2023년부터 전략작물직불제를 시행하며 논 타작물 육성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 방침에 따라 김제시는 논콩 재배면적 5,981ha로 전국 1위를 기록했으며, 이제 생산 중심을 넘어 농가의 안정적인 소비처 마련을 위한 6차 산업화기반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략작물산업화(들넛, 논타작물 단지화)' 및 '사업다각화 사업'을 통해 농업법인 및 농협에 컨설팅, 재배기술 교육과 트랙터, 콤팩트 등 장비와 가공시설 등을 종합 지원하고 있다.

2024년 33개소(61억 원), 2025년 46개소(70억 원)를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추진한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김제시는 3년 연속 농산시책평가 전국 최우수 시군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논콩을 소비할 수 있는 소비처 확보, 다양한 판로 확대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기본소득 보장 시비 직불금 142억원 지원

김제시가 지역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기본소득 보장과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을 위해 총 142억원 규모의 시비 직불금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실질적인 농가 지원에 나서며, 농업인 체감도가 높은 농정 실현에 박차를 가

하고 있다.

논 면적직불금에는 총 13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0.1ha에서 5ha 이하 규모의 논을 경작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ha당 82만 5천원을 지원하여 지역 주산지 논농업 보호와 쌀 안정 생산 기반을 확보함으로써 다수의 중소규모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소농직불금에는 총 1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1 농가당 연 36만원을 지원하여 영세농의 생활 안정과 영농 지속 의지를 높이고 있다.

전북 최대 규모 환경친화형 농자재 생분해성 멀칭필름 10억원 규모 지원

김제시는 올해 생분해성 멀칭필름 지원사업에 총 10억 1,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전북특별자치도 전체 사업비의 절반에 달하는 규모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는 도내 14개 시군중 최대 규모로, 김제시가 환경 친화형 농자재 보급과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생분해성 멀칭필름은 수확 후 땅속에서 자연분해되어 추가 수거작업이 필요없어, 폐비닐 수거에 따른 노동력 절감 및 경영비 경감에 큰 기여를 한다. 토양건강과 환경보전에 이점이 커 지속가능한 농업의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다.

74억원 규모 '농민공익수당' 지원 농업의 공익적 가치 실현 앞장

김제시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가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총 74억원의 규모의 농민공익수당을 지원한다.

농민공익수당은 농가당 1인 경영체 연 60만원, 2인 이상 경영체 구성원별 1인당 연 3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단순한 소득 보전을 넘어 농촌의 환경보전, 식량안보, 농촌 공동체 유지 등 농업이 수행하는 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보상 개념이 담겨 있다.

농민공익수당은 공익적 농업 실천 유도와 지역경제 선순환이라는 두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는 의미있는 정책으로, 시는 앞으로도 단기적 지원을 넘어 장기적 농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농촌구현을 위해 농민공익수당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을 위한 실

질적 지원이자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청년과 함께 여는 스마트 농업의 미래

김제시는 청년층의 농업 진입 장벽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 청년 대상 스마트팜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와 '청년인재유입 스마트팜 육성사업'을 통해 온실 신축·ICT장비·재배시설·에너지 시설 등 스마트팜 구축을 종합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 31명의 청년이 안정적으로 스마트팜을 운영하고 있다.

소득창출 원예농산물 육성

김제시는 경쟁력 있는 원예농산물 생산을 약 10억 원의 시비를 편성하여 자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내역으로는 △지역특화작목육성사업(90개소, 3억 원), △과수경쟁력강화 지원사업(19개소, 1억 원), △고소득작목 육성사업(30개소, 1억 원), △과파리카생산지 지원사업(6개소, 1.8억 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66대 2억 원) 등 6개 사업이 있다.

* 김제시 지역특화품목(12개) : 대봉감, 고사리, 연, 고구마, 감자, 논콩, 딸기, 토마토, 오디, 생강, 포도, 인삼

김제시는 기후 위기 등 점점 어려워지는 농업 속에서 경쟁력 있는 원예농산물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가에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지속가능한 농업, "농업인과 함께 성장하는 김제"

민선 8기 3년, 김제시는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농작물 재해보험과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지원에 77억 원을 투입해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왔으며 원예시설 현대화에도 38억원을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농가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농촌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는 신념으로 현장 중심의 농정을 펼쳐 왔다"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과 청년·여성농업인 지원, 인력난 해소, 논콩 산업 육성 등 농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